



청년극장 영인극장

백두산 편집부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

제공: 구국의 소리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

지금 경향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극악한 반민주반통일역적이고 권력야심가인 이회창을 야유, 조소하는 연극과 시, 가사들이 창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백두산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에서 창작한 연극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의 대본을 간추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
비서(이회창의 비서)
총재(이회창)
국민대표

비서 : 총재님, 총재님, 큰일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총재 : 야, 야, 시끄럽다. 호들갑 떨지마라.
비서 : 저기 저기 보십시오. 국민들이 태풍같이 몰려옵니다.
총재 : 어디? 어디? 하! 이거 참. 여보게 가서 불펜 한박스 사오게 나.
비서 : 불펜은 왜요?
총재 : 저 많은 사람들 싸인해주려면 불펜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내 인기가 어느새 이렇게 올랐지?!. 하하하. 참 싸인연습을 좀 해

야...
비서 : 총재님, 잘 보십시오. 저게 어디 싸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입니까? 따지러오는 거라구요.
총재 : 뭐야? 뭘 따지러 와?
비서 :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총재 : 야. 당장 경찰에다 전화들려. 전투경찰들 10개중대정도 오라그래. 따져?... 따지긴 뭘 따져? 싸그리 연행해서 콩밥 먹으라 그래! 음- 저놈들 다 콩밥 먹이면 콩이 많이 쓰이겠지만. 옳지! 농업정책으로 넣어. <농민여러분 콩농사를 지으십시오. 대박입니다.>
비서 : 총재님, 정신좀 차리세요. 대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총재 : 저 사람들이 다?
비서 : 표라구요. 표!
총재 : 표...
비서 : 그럼요. 잘 들어보십시오. 대통령후보로 나선 모당 모총재 집에 국민들이 찾아왔다...
총재 : 그것도 개떼같이... 그것도 뭘 따지러?
비서 : 아 개떼같은 소떼같은 따지러 왔든 뭐든 간에...
총재 : 그래 계속해라.
비서 : 찾아왔는데 전경들 불러서 개패듯 패고 싸그리 연행시켜서 콩밥을 먹여버렸죠.
총재 : 옳거니!
비서 : 옳거니는 무슨 옳거니. 아니 이게 표로 연결될 거 같습니다니까?

총재 : 아니. 표로 연결될 리가 없지. 그러면 저렇게 건방진 놈들을 그냥 놔두단 말이야? 괜찮아. 만명정도밖에 안되겠지만. 그쯤이야 표 떨어져도 아무 문제없어. 전화들려.
비서 : 만명이요? 여기다 곱하기 둘.
총재 : 왜 곱하기 둘이야?
비서 : 배우자, 마누라, 혹은 남편.
총재 : 그래 2만명.
비서 : 형제자매들, 양가 다 합쳐서 곱하기 여덟.
총재 : 16만명.
비서 : 이웃집과 친구들 10명 잡고 그 집도 배우자에 다 양가 다합쳐서 곱하기 28.
총재 : 아 계산하기 어렵다.
비서 : 아 좋아요. 그럼 30.
총재 : 480만명. 거... 전화 돌리고 있나?
비서 :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총재 : 이 자식이 미쳤구만. 누구 장래 치르는 꼴 보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

고싶어. 당장 끊어.

비서 : 걸으라면서요?

총재 : 아우참. 하, 이거 어쩐다... 원 이런 창자를 뽑아버릴 놈들. 어쩐다 이거.

비서 : 아 일단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니 기쁘게 맞이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인터뷰도 진짜 하구요. 총재님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약장수할 때 써먹을 겁니다. 이럴때 써먹어야죠. 살살 구슬려서 확실한 우리 표토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총재 : 참, 그래. 이보게. 빨리 비누공장과 타올공장에 전화들려.

비서 : 왜요?

총재 : 하나씩 들려야지.

비서 : 총재님,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아니 지금이 자유당시절도 아니고...

총재 :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래. 비누, 타올 이런거야 다 그 시절 얘기지. 뭐니뭐니해도 요즘엔 현금박치기가 최고다 최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한 50만원씩만 넣어서 돌려자. ***** 좀 빼오구려.

비서 : 21세기의 새천년이 밝아오면서 3김보스정치도 가라, 철새 정치도 가라, 지역감정야 너도 가라, 지난 세기의 온갖 낡은 것들을 싸쓸어버리려는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이 날로 솟구쳐오르는 오늘 대통령선거 나가겠다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뇌물을 쳐먹이겠단가요? 그리고 어찌 배에 물이 차겠습니까? 대통령 저 물건너갑니다.

총재 : 아, 나참. 그럼 어찌잔 말인가? 어찌잔 말이야?

비서 : 일단 집안이 검소하게 보여야 합니다. 집안에 비싸보이는 물건들은 싹 치우구요. 냉장고도 비우고 지하실문을 꼭꼭 잠궜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하십시오. 잘 들려대야 합니다.

총재 : 그거야 내 특기지.

비서 : 네, 그렇습니다. 가십시오.

총재 : 그러지.

국민 : 여기가 총재님택 맞습니까.

비서 :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 : 기다리다뇨? 어떻게 알고...

비서 : 하하하. 저희 총재님을 존경해서 찾아보려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많이 찾아온답니다.

국민 : 존경이요? 나 참. 이봐요 우린 존경해서 온게 아니라 따지러 온거라구요.

비서 : 아, 그렇군요. 지금 총재님께서 독서중이십니다. 독서만큼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국민들의 뜻이니 흔쾌히 허락하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비서 : 여러분 총재님께서 지금 나오십니다.

총재 : 참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자리가 불편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민 : 우리는 총재님에게 좀 따지러왔습니다.

총재 : 아, 따지러 오셨군요. 그래도 따지러왔다는 표현은 지성인들끼리 쓰기에는 좀 안 어울릴 거 같습니다. 다른 좋은 말이 없을까... 그래요. 간담회라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과 대화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훨씬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거 같은데...

국민 :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총재님더러 따지러 온거라구요. 간담회야 서로 좋은 감정일때 하는거고 지금판은 그런 판이 아니다 이겁니다.

총재 : 그렇군요. 예를 들면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명함이라도...

국민 : 전 오늘 국민대표자격으로 온 국민구 국민동 5통 3반 12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명함은 없습니다. 적어드릴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총재 : 네, 뭐든 물어보십시오.

국민 : 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 몇가지 요구사항을 들고 왔습니다. 할말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안됩니다. 진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총재 : 네, 그러죠.

국민 : 첫째 총재님은 호화빌라사건을 보나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나 시민들의 삶이라고는 잘 모르는 그야말로 귀족출신이 분명한데도 지금 대통령꿈을 꾸며 일도당토않은 시민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연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과거행적을 똑똑히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총재 : 호화빌라요? 호화빌라... 아, 그 빌라말입니다. 그거...그거 제가 아닙니다. 잠시 낙향했던중에 도저히 살 곳이 없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더부살이를 좀 했죠. 범만 알고 지낸 대쪽인 제가 어떻게 그런 빌라를 구입할 돈이 있었습니까. 저는 보다시피 여기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 : 호화빌라에서 산다는 것이 폭로되고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부랴부랴 옮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중에 누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사습니까. 다 친척들 이름을 빌려다가 사는거죠. 그런식으로 빠져나가려하지 말아야지요.

총재 : 하하. 좀 진정하세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민입니다. 굶고 배고픈 시절을 다 보냈죠. 아버지는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분이라 검찰계에 있었지만 늘 박봉에 시달렸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가난은 지금과는 비교도 못됩니다. 요즘엔 결식아동들에게 무료급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라면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

이라도 끊어먹죠. 하지만 제가 어릴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수돗물로 항상 배를 채웠어요. 배는 너무 고편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수돗물을 틀어서 한참이나 꿀꺽꿀꺽 마셨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구요. 어찌나 수돗물을 많이 마셨던지 배가 불룩해졌어요. 왜 아프리카에 못먹고 자라서 배만 불룩 튀어나온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애들모양 배가 불룩 나왔죠.

국민 : 일제때 집에 수도시설이 있었을 정도면 대단히 잘산게 아닌가요?

총재 : 이런. 그게 우리집이 아니었나? 옆집이었나?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생각해보니 수돗물이 아니라 냇물을 마셨던 거 같은데 저는 어릴때부터 박봉에 시달리던 아버지밑에서 수돗물 마시며 자란 시민입니다. 시민. 제가 얼굴이 좀 하에서 그런지 귀족분 위기가 난다고 그랬던거죠.

국민 : 자주 시민 시민하는데 그럼 옥탑방이란 것은 아는가요?

총재 : 옥탑방? 옥탑방이라.... 아 예 저는 그런거 모릅니다. 항상 깨끗하고 청렴하게 꼭 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그런 것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한 잡지 한번 안본 사람입니다. 옥탑방이니 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이나 출입하는 곳이죠.

비서 : 총재님. 옥탑방은 그런데가 아니라...

총재 : 어제밤에 단체로 갔던데 아니야?

비서 : 어제밤에 단체로요?



총재 : 그래 입마. 그집 이름이 뭐더라... 그집도 <옥> 뭐였는데. 거 왜 따따미랑 미향이, 일난이같은 애들 하늘거리는 웃입고 나오는 그 옥, 옥마...

비서 : 옥마관입니다.

총재 : 아 맞다 옥마관.

비서 : 옥탑방은 그런게 아니라...

총재 : 아 그럼 옥탑방이 옥보단같은 영화처럼 아한애들 나와서 춤추는데 아니야?

비서 : 예, 아닙니다.

국민 : 옥마관? 하늘하늘. 흥! 그런데도 들락거리는군요. 어쨌든 옥탑방은 모르는군요.

총재 : 아니 잠깐만. 그 옥탑방이 뭐냐?

비서 : 저기요 옥상마다 허름한 가건물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옥탑방이라고 합니다.

총재 : 아하! 알겠다. 그런데 그게 왜 방이나 창고면 창고지.

비서 : 창고가 아니라 집입니다. 집하나에 방하나 옥상에 있으니까 옥탑방.

총재 : 야, 그거 창고아니었어. 거기 사람이 산다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 국민여러분 저는 그런데 절대로 모릅니다. 체면이 있지 그런 거지같은데를 제가 알리가 있겠습니까.

비서 : 총재님!

총재 : 총재 여?다 이 자식아! 시끄러워 고막찢어지겠다.

비서 : 표! 표!

총재 : 표? 그렇지. 표! 내가 지금 뭘 더 바라는 거냐. 국민여러분 나는 옥탑방에 기본적으로 없지만 옥마관에는 살아봤습니다. 아, 실수였습니다. 옥탑방에 살아본 적은 없고 옥마관에 기본 적은 있... 또 실수했다. 창고가 붙은데가 옥마관이야? 옥탑방이야 응?

국민 : 그렇군요. 역시 그럴줄 알았다니까. 어릴때 수돗물을 배터지게 마실 정도로 부자였고 옥탑방이란데는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런데 왜 시민층내는 그렇게 내는걸까. 까마귀가 백로되나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시대때 악질적인 친일파였는데 그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두번째요. 당신의 아버지는 일제에게 충성한 친일분자로서 그 악명을 여러곳에 떨쳤고 당신 또한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당장 그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후보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거예요. 어때요. 뭐라 할말이 있어요?

총재 : 이 여자 이거 웃기는 여자구만. 혹시 남편 성이 최씨 아니야? 이거 봐. 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물러나라 말라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어요.

국민 : 이건 법적인 문제가 정체성을 바로잡는 문제구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바로잡는 문제라구요. 대통령후보라는게 이런것도 몰라가지구 원..

총재 : 나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에 나갈겠다는거요. 내가 바로 투표가 아닌가.

국민 : 당신같은 친일파들이 여태 설쳐대니까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지. 웃기는 여자? 이봐요 총재님 난 지금 국민대표의 자격으로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거라구요.

국민 : 세번째인데요. 오노가 금메달을 빼앗아갔을 때 반미감정으로 번지면 안된다 그러더니 여중생암살 사건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한테 서해교전이 터지니까 철저한 응징이네, 금강산관광을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던 그날 손자랑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면서요. 그것뿐 아니라 <악의 축>이니 뭐니하는 부시의 전쟁책동에 맞장구치고 남북관계가 6.15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2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떠벌였는데요. 이것은 당신의 친미반통일적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계속 미국에 휘둘리고 통일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지요.

백두산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에서 창작한 연극대본, <총재님, 좀 따져봅시다>를 간추려 보내드렸습니다.

국국의 소리, 2002/09/24-26